

구마모토 뮤지엄 와쿠와쿠자

‘와쿠와쿠’란, 일본어로 ‘기대’ 또는 ‘흥분’하는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마모토 뮤지엄 와쿠와쿠자’에서는 이름처럼 구마모토성의 역사를 즐겁게 보고, 듣고,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 어린이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이곳의 볼거리로는 2016 년 4 월, 지진으로 인해 기와가 떨어지고 돌담이 무너진 모습을 프로젝션 매핑으로 재현한 성의 3D 모델과 지진 직후에 피해를 입은 성의 영상을 보여주는 시어터 룸,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을 비추는 실시간 영상 등이 있습니다. 세이난 전쟁(1877) 당시, 실패로 끝나버린 구마모토성의 공성전을 자동식 종이 연극(장면 하나하나를 묘사한 그림을 보여주며 낭독하는 연극)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사이고 다카모리(1828-1877)가 ‘관군에게 진 것이 아니라 (17 세기 초엽에 난공불락의 성을 축성한) 기요마사공에게 졌다’는 말을 남긴 것이 유명합니다.

2 층에는 대극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 성 내부를 견학(다언어 자막 제공) 및 역사적인 사건을 재현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레고사의 인증을 받은 프로빌더가 7 만 5,000 개의 블록으로 쌓아 올린 구마모토성의 모형은 성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코스입니다. 에도 시대의 무사가 된 기분으로 멋있는 가마에 앉아보거나 말에 올라타보는 등 관내 곳곳에서 기념 촬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시간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로비로 돌아와 의상을 대여한 후 사무라이나닌자, 마치무스메(당시 상인 가문의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관내를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